정치 > **통일**

북한 국경봉쇄 '비공식' 해제?...심상치 않은 북중 접경 움직임

글로벌타임스, 북중 무역 재개 조짐...로이터, 1일 화물수송 가능성

북한 전문 관광업체들 오는 7~8일 겨냥한 관광상품 속속 공개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04-26 07:30 송고

중국 랴오닝 성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압록강 대교.©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1년 이상 봉쇄해 온 북중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일부 해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곧 화물열차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등 무역 재개 움직임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24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며칠 전 북한 측이 북중 국경봉쇄 조치가 "해제됐다"고 비공식적으로 민화협 측에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의장은 "형식적으론 봉쇄가 해제됐지만 아직 (북중 교류가)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인도지원 관련 업무를 해오며 북측과 신뢰도가 높은 채널을 구축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 민화협 측으로부터 이러한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다수 외신들도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이 재개되는 듯한 흐름이 포착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求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북한이 아직 화물 및 여객 수송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곧 재개될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양국간 무역이 재개되더라도 국경 폐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로이터통신은 북중 간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5월1일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대교를 통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북중간 무역 재개를 위해 국경 봉쇄가 해제된다 하더라고 비공식으로 이뤄지거나 국경 폐쇄 조치는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들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을 개방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공식화 하지 않고 무역이나 교역을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즉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북중 국경 봉쇄 완화는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개방이라기보다 일부 민간이나 등 비공식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북한 전문 해외 관광 업체들은 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북한 당국과의 사전 교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관광 업체들의 움직임은 북한 국경 개방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여행사들은 오는 7~8월을 겨냥해 여행상품을 내놓고 있다.

북한 전문 관광 업체인 '고려투어스'(Koryo Tours)는 평양부터 비무장지대(DMZ)를 거쳐 백두산까지 방문하는 단체관광 상품을 최근 공개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관광객을 모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업체는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평양 '양각도호텔'이 지난 2019년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을 공개하며, 북한 관광에 대한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전문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Young Pioneer Tour)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전후해 평양을 둘러보는 관광상품, 8월 초쯤 자전거를 타고 평양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